

민사소송법

2014년 시행 5급(행정) 공채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필지를 乙에게 임대하였고,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. 임대차기간 만료 후 乙의 기간연장 요구를 甲이 거부하였음에도 乙은 위 토지를 반환하지 않았다.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(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) (총 40점)

- 1) 이 소송의 계속 중 乙이 위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甲은 丙을 상대로 소송인수신청을 하였다. 이러한 신청은 적법한가? (15점)
- 2) 이 소송의 계속 중 乙은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, 심리결과 甲, 乙의 주장사실과 매수청구권 행사가 전부 인정되어 법원은 “乙은 甲으로부터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.”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? (25점)

제 2 문. 甲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甲회사를 대표하여 乙을 상대로 8,000만 원의 매매대금 지급청구와 3,000만 원의 공사대금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. (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) (총 40점)

- 1) 제1심 법원은 위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6,000만 원을,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1,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乙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, 丙은 항소심 계속 중에 위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금액을 1억 원으로,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의 금액을 5,00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.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7,000만 원을,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2,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가? (30점)
- 2) 제1심에서 甲이 전부 패소하자 丙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. 항소제기 후 丙은 2014. 5. 2.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乙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2014. 5. 9. 항소를 취하하였다. 2014. 5. 8. 법원이 丙의 사임사실을 알게 된 경우 丙의 항소취하는 유효한가? (10점)

제 3 문. 서울 서초동에 사는 甲과 乙은 A여행사의 관광버스를 타고 남해로 여행을 가던 중 그 관광버스가 전복되어 부상을 당하였다. 甲은 A여행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소송계속 중 乙은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. 이 신청은 적법한가? (20점)

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



안전행정부

민사소송법

1 / 1